

광주·전남 대형소매점 매출 증가율 ‘최고’

1분기 판매액 광주 4278억·전남 1998억...광주 14.4%·전남 5.6% ↑
광주 백화점 매출 23% 증가한 2284억...전체 매출의 53.4% 차지

올해 1분기 광주·전남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코로나19 저지효과’로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1분기 시도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광주 4278억원·전남 1998억원 등 6277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4.4% 증가했고, 전남은 5.6% 올랐다.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은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올 1분기 대형소매점 매출 증가율은 광주(14.4%)와 전남(5.6%) 두 지역 모두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판매액은 서울이 5조219억원으로, 전국(16조3529억원)의 30.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조2201억원), 부산(1조4430억원), 대구(1조291억원), 인천(6323억원), 경남(6255억

원), 대전(5464억원), 광주(4278억원), 충남(4215억원), 울산(4002억원), 경북(3433억원), 전북(2635억원), 충북(2629억원), 강원(2608억원), 전남(1998억원), 제주(1320억원), 세종(1227억원) 순이었다.
지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는 2.6%, 전남은 1.2%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대구 매출이 26.1% 오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종(21.8%)과 부산(18.3%), 서울(16.6%), 광주(14.4%)는 전국 평균 증가율(14.0%)을 웃돌았다.
지난해 1분기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은 3740억원으로, 전년보다 8.9% 감소했다. 이후 4083억원

(2분기)→3920억원(3분기)→4311억원(4분기)→4278억원(올 1분기) 등을 기록했다.
전남 대형소매점 매출은 지난해 1분기 전년보다 2.9% 감소한 1893억원을 기록한 뒤 1853억원(2분기)→2061억원(3분기)→1942억원(4분기)→1998억원(올 1분기) 등으로 나타났다.
1분기 광주지역 3개 백화점 매출은 2284억원으로, 대형소매점 매출의 53.4%를 차지했다.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광주 대형마트 매출은 1995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백화점 3곳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12개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조사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른 더위에 “보양식 잘 팔리네”
광주 이마트 전북 매출 53.2% ↑

한낮 기온이 30도에 이르는 더위가 찾아오면서 5월부터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2일 광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10일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꼽히는 전북 매출은 1년 전보다 53.2% 증가했다. 장어는 22.5% 증가하고, 간편식 삼계탕도 7.5% 늘었다.
이마트는 ‘5월 원기회복 특별기획’ 행사를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손질한 국산 바다장어(마리)를 특 7980원, 대 5980원에 내놓는다. 하림무항생제 국내산 닭 부문 육 3종(가슴·안심·다리살 400g)은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인증하면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WET에이징 한우 보쌈살·얇다리살 구이(냉장·국내산)도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페어망으로 나일론 만든다...효성티앤씨 ‘마이판 리젠오션’ 출시

친환경 기업 ‘�스트파’와 협약

효성티앤씨가 투명 페트병 재활용에 이어 버려진 어망을 재활용한 나일론 섬유 ‘마이판 리젠오션’을 출시한다.
효성티앤씨는 12일 부산시, 친환경 소설벤처기업인 �스트파와 업무협약을 맺고 페어망을 활용해 친환경 섬유로 만드는 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버려진 어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오염을 줄이고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버려진 어망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트

파는 수거된 어망들을 파쇄·세척하는 전처리 과정을 담당한다. 효성티앤씨는 전처리가 완료된 어망을 재활용해 나일론 섬유인 ‘마이판 리젠오션’을 생산한다.
‘마이판 리젠’은 2007년 효성이 세계 최초로 버려진 어망을 재활용해 만든 섬유다.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섬유인 ‘리젠’의 나일론 버전이다.
그간 버려진 어망의 수거가 원활하지 않아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일론 원사나 칩을 중심으로 ‘마이판 리젠’을 생산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정적인 페어망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이판 리젠오션’을 출시하고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효성티앤씨는 ‘마이판 리젠오션’ 출시와 함께 해중압설비 투자도 확대한다. 해중압설비는 효성티앤씨가 독자 기술로 ‘마이판 리젠’을 생산 시 어망의 불순물을 제거해 원료의 순도를 높여주는 설비다.
효성티앤씨는 올해말까지 해중압설비를 확충해 ‘마이판 리젠오션’을 월 150t 이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은 그간 독자기술로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팽크스 등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왔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리넨 최대 60% 할인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4층 ‘유닛’매장에서 ‘2021롯데 리넨페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내일부터 6월30일까지 ‘리넨페어’
‘유닛’ 제품 구매시 예코백 증정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이른 여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리넨’ 의류 할인전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이름은 ‘2021 롯데 리넨페어’이다. 마 식물을 원료로 한 리넨은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옷 소재로 인기가.
롯데백화점은 행사 기간 동안 자체 브랜드 ‘유

닛’의 신상품·이월상품 200여 종을 최대 60%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재킷과 셔츠, 원피스, 카디건, 바지(슬랙스) 등을 리넨 소재와 레이온 혼방 등 다양한 종류로 선보인다. 각 상품마다 흰색, 살구색, 분홍, 노랑 등 10여 가지 색상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리넨 100% 반팔 티셔츠’ (2만9000원) 등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유닛’ 제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면 소재 ‘유닛 예코백’을 선착순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눈 건강·멋 함께 챙기세요”
(주)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이 2층 선글라스 매장 ‘오클라’에서 스포츠 전용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신규 입점한 이 매장은 일부 품목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중개 환영.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 부지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매매 - 협의

거문도, 싼땅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매매 - 평당 30만원씩

거문도 별장 주택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대지 221평, 건물 21평

▶ 방 2, 화 2, 거실, 주방

▶ 바닷가 최고 전망

▶ 텃밭, 정자, 내부시설

▶ 매매 - 2억2000만원